[별지 서식 제1호]

인 증 신 청 서

☑ 탐방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목 표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는 호남의 선비가 되어 장성새재 옛길을 체험한다. 자연과 하나 되었던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느끼며 그 속에서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운다.		
운영장소	☑공원구역내 □ 찾아가는(공원인근 또는 외부) □ 혼합형		
유 형	□해설자안내 □스스로 안내 □체험형 ☑복합(해설자 안내 + 체험)		
범 주	☑자연해설 ☑역사문화 □해안생태 □갯벌사구 □거점해설 □자연체험 ☑역사문화체험 □자연경관 ☑문화경관 □해안경관 □야간 □슬라이드 □탐방안내소 □기타 ( )		
운영 대상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노인층(실버) □장애인 □외국인 □가족단위 □ 구분 없음 □기타( )		
운 영 시 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음		
모 집 인 원	10~20명 내외	진행시간(분)	
활동장소 및 특성	탐방지원센터~장성새재 약 2.7㎞ 본 탐방로는 선조들이 한양 가던 길인 장성새재로 주막 등 옛 새재마을 흔적을 관찰 할 수 있고 군사작전으로 훼손되었던 곳을 복원하고 있어 숲이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준 비 물	봇짐, 입암산 주변 고지도, 나무목걸이, 입압산성 사진, 루페, 산경표 등		
제 출 자 료	1. 인증신청서(별지서식-1) 2. 프로그램 진행개요(별지서식-2) 3. 해설 시나리오(별지서식-3) 4. 해설가용 참고자료(별지서식-4)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자	2010년 5월 일	신 청 인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별지 서식 제2호]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활동목표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는 호남의 선비가 되어 장성새재 옛길을 체험한다. 자연과 하나 되었던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느끼며 그 속에서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운다.		
해설주제	장성새재를 걸으며 자연과 하나 되었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운다.		
해설재료	장성새재, 옛 새재마을, 탁족, 천주교 공소 등	소요시간(′)	120 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1.첫만남	국립공원소개 및 일정 안내	봇짐	/10
주제별 해설	2.장성새재	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지도,나무목걸이	5/5
	3.남창골의 두 선비	자하 변경윤선생과 하곡 정운룡 선생		/5
	4.입암산성	입암산성에 대한 역사해설	입암산성사진	2/5
	5.장성새재복원	되살아나는 장성새재	루페	2/7
	6.산림욕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산림욕		5/7
	7.소나무	장성새재 옛길에서 만난 소나무		5/5
	8.조릿대	선조들의 생필품을 만들던 조릿대		5/5
	9.너덜지대	하찮은 돌도 쓸모가 많아요		3/5
	10.백두대간	지역과 언어와 상권을 가르는 백두대간	산경표	5/5
	11.탁족	긴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는 탁족		/4
	12.옛새재마을	옛 새재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5/10
	13.월은치와 불바래기	월은치와 불바래기는 어떤 곳 일까요?		/5
마무리	14.마무리	봇짐 풀고 마무리		/5

신청인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첫만남	봇짐지고 장성새재 길로 떠나기
1.국립공원 소개 및 일정안내	여러분 안녕하세요.(탐방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프로그램을 함께 할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이렇게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시죠?(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오늘은 모든 일을 잊고 자연에 몸을 편안하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은 선조들이 과거보러 갔던 옛길을 걸으면서 역사와 자연에 대해 배우고 참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곳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는 선조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으며 1급수의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어 깨끗한 수서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닿지 않아 청정한 자연이 원시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을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옛날 선조들이 되어 약 2km의 장성새재를 걸으며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살펴보고 이곳의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지혜를 엿보고 이곳에 사는

1.국립공원 소개 및 일정안내	여러 동·식물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라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곳 입암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고,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자원,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방문하신 이곳은 어떠한 곳일까요?(참여유도) 이곳 입암산을 중심으로 한 남창지구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197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과 장성군 북하면의 천년고찰 고불총림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암산과 입암산을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호남의 3대 산성중의 하나인 입암산성과 연중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남창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입암산이라는 명칭은 멀리서 보면 바위가 마치 갓(草笠)을 쓴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갓바위에서 유래되었는데 갓 입(笠)자에 바위 암(岩) 자를 써서 입암산이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

1.국립공원 소개 및 일정안내	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참여유도 : 쓰레기투기, 자연훼손행위, 비지정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애완동물 입장 등 답을 유도하고 보충설명) 자 이제까지 이곳을 포함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5분 스트레칭 및 간단한 운동을 통하여 몸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시절에 배웠던 국민체조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앞을 보시면 안내간판에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저를 잘 따라해 주세요. (스트레칭 진행) 모두 몸을 잘 푸셨나요? 오늘 우리는 선비가 되어 장성새재를 걸으며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을 할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봇짐이 필요하겠죠? (봇짐을 하나씩 나눠주며) 긴 여정을 위해 필요한 봇짐입니다. 봇짐 안에는 오늘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으니 선조들처럼 허리나 어깨에 메고 떠나겠습니다. 해설을 위하여 쉬어 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라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장성새재를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2. 장성새재	**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2.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저기 화장실이 보이시죠? (주의집중) 화장실 앞 공터에서 잠시 앉아서 쉬어가겠습니다. 모두 앉아보세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참여유도) 네 맞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정읍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약 1시간 정도 걷다보면 장성새재라는 이름의 고개의 정상이 나오는데 그 곳은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으로써 민가와 주막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 우리 조상들은 이 길을 통하여 정읍과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영남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위해 한양으로 향할 때 문경새재를 넘어서 힘든 과거 길에 올랐던 반면 호남선비들은 과거를 보기위해 이곳 장성새재를 넘어서 과거 길에 올랐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새재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3가지의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룩하게 생겼다 하여 이름이 붙어졌다는 설. 둘째, 사이재가 변했다는 설. 셋째, 고개가 너무 높아 새도 중간에 잠시 쉬었다고 하여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 그렇다면 이 곳 장성새재나 문경새재를 넘었갔던 많은 선비들의 봇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한 번 맞혀보세요. (참여유도) 네~ 이 봇짐 안에는 긴 여행을 하기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

2.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니다. 새재 길을 오가며 한양으로 과거보러 긴 여행을 떠났던 선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무엇을 먼저 챙겼을까요? 여러분이 옛 선비였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겠어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밥'과 '물'이겠죠? 또 비상식량으로 주로'미숫가루'와 '꿀'챙겼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참여유도)네. 선비들에게 빠질 수 없는 '붓'과 '벼루'도 꼭 챙겼겠죠? 또 무엇을 챙겼을까요?(참여유도)네. 신분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물건.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한 옛날 신분증은 무엇일까요?(참여유도) 네. '호패'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신분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봇짐을 풀어보세요. (봇짐을 풀어서 나무목걸이를 보여주며) 이 나무목걸이가 여러분의 호패가 될 거예요. 옛날 호패에는 무엇이 써져있었을까요? 어렵다면 주민등록증에 무엇이 써져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름과 출생년도, 주소 등이 써져있죠? 호패도 비슷해요. 이름, 거주지, 출생신분 등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각 한쪽 면에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라고 써져 있죠? 그 반대편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다 쓰신 분은 목에 걸어주세요. 이제 우리도 길을 떠나야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프린트한 대동여지도를 꺼내 보여주며)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지금 이 곳이 어디쯤 일지 한번 맞혀보세요. (참여자 중 한명에게 가리키게 한다.) 네~이쯤이겠죠? 이곳이 지금우리가 있는 남창지역으로 성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여 남창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곳 바로 옆에 전남대 수련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곳이 바로 예전에 곡식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반대편 성의 북쪽인 정읍 쪽을 북창이라고 부릅니다. 남창에는 식량을, 북창에는 무기

2.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를 저장했었습니다. 그럼 한양은 어디쯤일까요? (참여자 중 한명에게 가리키게 한다.) 그럼 이 곳 남창지역에서 한양까지 어떤 길로 갔을까요? 여러분의 봇짐에는 지도와 볼펜이 들어있습니다. 꺼내서 어떤 길로 가야 한양을 빨리 갈 수 있을지 표시해보세요. 다 표시했나요? (참야유도) 옛 선조들은 장성에서 정읍, 태인, 금구, 여산, 천안, 수원, 과천 길을 따라 한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표시한 길과 비슷한가요? 지금의 호남고속도로와 비슷한 길이죠. 이 길이 한양 가는 큰 길이었다면 장성새재는 한양 가는 샛길이었습니다. 오늘 한양까지는 아니지만 이 길을 따라가며 옛 선조들의 자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장성새재 말고 한양 가는 큰 고갯길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죠? 그 곳의 이름은 갈재라고 합니다. 갈재는 현재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호남터널의 위에 있는 곳으로서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몽골의 침입 시 고려의 왕이 피난을 가기 위해 넘었던 곳이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시대 때 대낮에도 도둑들이 떼로 몰려다녀서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재로 향하는 길을 보며 옛날 이 길의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호랑이나 표범 등 무서운 짐승들과 도둑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개를 넘어 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남창골의 두 선비	자하 변경윤 선생과 하곡 정운룡 선생
3.자하 변경윤 선생과 하곡 정운룡 선생	이곳 남창골에도 장성새재를 이용했던 선비 중 유명한 선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선생과 자하(紫霞) 변경윤(邊慶胤) 선생인데 남창골에는 이분들의 호를 따 자하동과 하곡동이라는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잠시 두 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곡 정운룡 선생은 성품이 고상하고 깨끗하며 온후한 분으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과 덕행을 쌓아 평생을 수양에 전념하였으며, 꿋꿋하고 청빈한 자세로 선비로서의 바른 삶을 걸으시다가 일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조선조 중종 37년(1542년) 정월 27일 장성군 북일면 사동리에서 태어난 선생의 이름은 운룡이요, 본관은 하동이었습니다. 나이 18세에 문장이 뛰어나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시험장에서 불합격된 선비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로는 다시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하니 당시 대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기고봉 스승이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또한 효성으로도 그 이름이 높았는데 선생의 계모 이씨는 성질이 포악하고 모질어 선생을 눈 속의 가시처럼 미워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견뎌내기 힘든 일을 쉬지 않고 시키고 구박했지만, 선생은 아들의 도리를 어김없이

3.자하 변경윤 선생과 하곡 정운룡 선생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단정히 한 후에 사당에 나아가 절을 하고,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계모 이씨가 늦게 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효성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선생은 효도로 이름난 서능 선생의 외손으로 서능 선생의 효성과 뛰어난 학문을 추모하여 서삼면 모암리에 모암서원을 장성현감(지금의 군수)의 도움으로 세워 제사하였으며, 이곳에서 후진 인재를 양성하여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이 배출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금님이 피난가시고 팔도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났지만 전라도 감사(지금의 도지사) 이광은 싸움에 나가기를 주저하며 오히려 의병을 방해하자 선생은 분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낱낱이 상소하여 이광을 벌하게 하였습니다. 그 해 겨울, 고창 현감으로 부임하여 오천 김경수, 장성 현감 이귀, 금강 기효간, 오봉 김제민 등과 장성 남문에 의병청을 만들어 의병과 의곡을 모아 각처에서 왜적과 싸워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생이 죽은 뒤 나라에서는 좌승지란 벼슬을 주어 모암서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윤 선생은 1574년, 이곳 장성에서 망암 변이중과 오씨 사이에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변이중은 조선 선조 때, 화차를 발명하여 권율이 행주산성 싸움에 이를 사용, 크게 승리를 거두도록 하신 유명한 분입니다. 선생의 이름은 경윤이며, 호는 자하, 본관은 황주로써 천성이 아버지를 닮아 인품이 정중하며,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 어려서부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한번 읽고 이해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라움을 사곤

3.자하 변경윤 선생과 하곡 정운룡 선생	하였습니다. 선생의 나이 스무 살 무렵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풍류로 나날의 보내다 어느 날 이를 눈치 채신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다가 매우 꾸짓었습니다. 선생은 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학문에 열중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그 후 우계 성혼, 사계 김장생 등 당시의 유명한 학자들에게 글을 배우며 정진하였습니다. 광해군(1575~1641) 시절에 구언령(求言令)을 내리자, 선생은 교서저작이란 말직으로써 당시 국정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소하면서, 특히 집권대신들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려 미움을 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선생은 지금이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자하동에 은거하여 평생을 성리학설 연구와 추진 양성에 전념하였으며, 조정에서 선생에게 관직에 다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남창골의 두 선비처럼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배워 생활하면 언젠가 우리들의 이름을 딴 마을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럼 선조들이 지혜로 나라를 지켰던 곳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입암산성	입암산성에 대한 역사해설
4.입암산성에 대한 역사해설	여러분 이곳은 통상 새재갈림길이라 부르는 곳으로 오른쪽 길은 장성새재를 넘어 정읍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일까요?(참여유도/주의집중)네 맞습니다. 바로 입암산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 입암산성은 담양의 금성산성, 무주의 적상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앞에 있는 안내간판에 담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주의집중) (지도에 표시된 산성위치를 가르키며) 이 곳이 입암산성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산이 많아 산성이 발달한 나라로 교통의 요지에는 산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성은 지형에 따라 산성과 평지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산성의 종류는 크게 테뫼식 산성과 포곡식 산성이 있는데요. 테뫼식 산성은 산 정상을 중심으로 산의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되게 한 바퀴를 둘러 산 정상에 마치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쌓은 산성이며 그 모양으로 인해 시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축성연대가 오래된 것이 많으며 소규모 산성이 이에 속합니다. 테뫼식 산성은 단기 전투에 대비한 산성입니다. 포곡식 산성은 산등성이 지형을 따라 성을 쌓아, 하나 또는 여러

4.입암산성에 대한 역사해설	개의 계곡을 포용하고 축성된 것을 가리킵니다. 내부에 수원(水原)이 풍부하고 활동 공간이 넓고, 외부에 대한 노출도 테뫼식보다 훨씬 적어 주로 장기 전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암산성은 테뫼식과 포곡식 중 어디에 속하는 산성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맞습니다. 입암산성은 산등성이를 따라 최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돌을 쌓아올려 만든 포곡식 산성입니다. 그럼 왜 이곳이 호남의 3대 산성중 하나가 되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암산은 산세가 높고 험준한 반면에 꼭대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 형세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입암산성의 형상을 마치 말의 구유(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두던 큰 그릇)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만큼 사방이 높으면서도 가운데는 널찍하여 성벽에 올라서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입암산성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고려 고종 43년(1256) 장군 송군비가 몽고 침략군으 맞서 승리를 거뒀으며 조선시대에도 정유재란(1597~1598) 때에는 윤진이 의병을 모아 왜병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다 순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입암산성은 호남지방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쓰였던 곳이랍니다. 이제 이곳이 왜 호국의 성지이자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가 되었는지 아시겠죠?(참여유도) 입암산성의 총 길이는 약5.2km 이며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또한 포루 넷, 성문 둘, 암문 셋,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했던 연못 아홉개와 사찰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집터에 남아있던 샘물 열네개가 있

4.입암산성에 대한 역사해설	었는데 성내의 계곡은 여름이나 겨울에도 마르지 않아 오랫동안 병사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 한 시간 정도 올라가면 비교적 성곽의 형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남문지가 나오는데 남문을 지나 성안을 가로 질러 2.4km쯤 가면 북문지가 있습니다. 그럼 서쪽과 동쪽에도 문이 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옛 지도에나 문헌에 보면 서쪽과 동쪽에는 문은 없고 서장대와 동장대가 있었습니다. 서쪽과 동쪽은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형이 험해 불필요하게 성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대란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일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장대란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 감시 초소와 같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입암산성 남문 사진과 일반 산성의 성곽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바로 입암산성 남문지의 모습입니다. 성곽은 크게 성체와 여장으로 나누는데 지금의 남문성곽은 이중, 성체만을 복원한 것으로 전쟁 시 몸을 숨겨 총과 포를 쏠 수 있는 여장부분과 남문의 성문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입암산성의 역사와 전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시죠?(대답 뒤에) 네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입암산성을 만나는 “입암산성과 선조들의 나라사랑” 프로그램도 있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각자 소지하고 계신 짐을 잘 챙기시고 장성새재 옛길을 체험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장성새재 복원	되살아나는 장성새재
5.되살아나는 장성새재	여러분 우리 왼쪽에 있는 줄은 방금 지나왔던 새재화장실에서부터 쭉~이어져 있습니다. 왜 이 줄이 있는 것일까요? (참여유도/주의집중) 바로 새재 길을 복원하기위해서 입니다. 이 길은 1960년대 군사작전을 이유로 도로를 확장하여 자연이 훼손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 곳을 복원하기 위해 길 폭을 줄이고 줄을 쳐서, 줄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줄 안쪽을 보면 느리지만 조금씩 숲이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줄 바깥쪽의 흙은 보고 만져보고 루페로 관찰해보세요. (루페를 나눠주고며) 딱딱하고 건조하죠? 줄 안쪽의 흙도 한 번 만져보고 루페로 관찰해보세요. 어때요? (대답을 들은 후) 낙엽이 햇빛을 가려줘서 촉촉하고 부드럽죠? 이 두 흙 중에서 어떤 흙에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나요? (참여유도) 네~ 대부분의 식물이 줄 안쪽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에서 더 잘 자랍니다. 줄 바깥쪽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흙이 압력을 받아 단단해진 땅입니다. 이렇게 흙이 단단해지는 것을 답압이라고 합니다. 답압은 땅속 30cm까지 영향을 미쳐 나무의 뿌리가 공기와 뿌리를 빨아들일 수 없게 해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합니다. 부드러운 흙은 공기와 물, 각종 영양소의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흙이 다져지면 그

5.되살아나는 장성새재	러한 영양분을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나무는 말라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질경이나 마디풀과 같은 풀은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자라지만 흙이 너무 단단해져서 이러한 식물조차도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줄 안쪽은 낙엽을 들추고 자세히 보면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닥에 돌이 깔려있는 이유도 땅이 더 이상 패이지 않게 해 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양옆으로 더 이상 길이 더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식물이 살기 좋은 양토1cm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참여유도)네.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우리가 함부로 발로 차거나 더럽다고 털어내는 흙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여기 쳐져있는 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자연그대로의 숲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다음 해설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6. 산림욕의 효과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산림욕
6.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삼림욕	이곳 국립공원은 최근 과학적인 입증을 통하여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림욕을 즐기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또한 아토피나 천식 등 각종 환경성질환 환자들로부터 편안한 자연 속 무료병원이자 휴식처로써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한번 산림욕을 경험해봅시다?(참여유도)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저를 보면서 제 설명에 따라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 분씩 고개들 들어 하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나무 꼭대기를 향해 기지개를 쭈욱 펴보고 심호흡을 크게한다). 그럼 우리 몸을 꽉 조이고 있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필요하시면 상의 겉옷은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들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같이 두 눈을 살며시 감아주시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쉬십시오(심 호흡 5,6회 실시) 어떠세요? 기분이 좀 더 상쾌해 지셨나요? 여러분 혹시 피톤치드라는 말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대답뒤에)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군요.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서적이나 인터넷, 방송 등에 산림욕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그럼 과연 피톤치드란 무엇일까요?(대답 뒤에)

6.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삼림욕	네 맞습니다. 다들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많이 알고 계시는 군요 피톤치드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가 합쳐진 말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 속에 들어갔을 때 풍기는 시원한 숲의 냄새가 바로 피톤치드인데요. 피톤치드는 숲 속의 각종 균이나 미생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지만 사람에게는 더없이 이로운 부분이 많아 실제로 숲에서 요양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로 인하여 효과를 보았습니다. 피톤치드와 관련된 숲의 치료 효능에 대한 의미 깊은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에는 결핵환자들이 넘쳐 이들을 수용할 병실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넘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원 뒤뜰 숲에 임시로 텐트 병동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 속에 수용한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병원안의 환자들에 비하여 훨씬 높았습니다. 병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학술지에 보고하면서 그 이후로 숲의 치료 효과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답니다. 그 만큼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숲은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증거겠죠? 이 피톤치드는 주로 활엽수 보다는 침엽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은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질문정리 후에) 네 많이들 아시

6.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산림욕	는군요 맞습니다. 산림욕은 어느 계절에 해도 상관없지만 피톤치드 발산량이 가장 많아지는 계절인 봄과 여름 중 날씨가 맑고 바람이 적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피톤치드와 산림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벌써부터 몸에 힘이 생기고 건강해 지는 것 같죠?(의견정리)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발끝만 보면서 걷지 마시고 손을 펼치며 피톤치드를 느끼면서 걸어보세요. 이렇듯 숲은 산림욕을 통해 우리 몸을 편안하게도 하지만 우리일상생활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우리 선조들이 가장 사랑했던 나무를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소나무	장성새재 옛길에서 만난 소나무
7.장성새재 옛길에서 만난 소나무	(소나무 숲이 보이기 전) 여러분은 나무들 중 어떤 나무를 좋아하세요?(참여유도) 네. 많은 나무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대답들은 후) 네~1등은 소나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조사에서 수십 년간 소나무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한민족과 함께 이 땅에 살아오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늘 푸른 잎을 가진 소나무는 굽힐 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여 선비들은 소나무를 닮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숲에서는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면 소나무가 스스로 자라기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서 소나무를 비교적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전체 숲의 2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소나무는 다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숲은 참나무류처럼 잎이 넓은 활엽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나무는 강해보이지만 사람들의 간섭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하지만 농경문화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소나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수백 년간 숲의 낙엽과 같은 부산물을 다 긁어 땅은 점차 힘을 잃고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나빠진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입니

7.장성새재 옛길에서 만난 소나무	다. 소나무 숲은 이렇게 사람들의 끊임없는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소나무 숲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깊은 산골에서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소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쓰면서 송편, 송화다식, 송기떡을 먹고 살다가 이승을 하직할 때는 송판으로 만든 관에 들어가 뒷산 솔밭에 묻혔으니 그야 말로 소나무와 한평생을 함께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무덤 주변에 소나무가 심어진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소나무가 내뿜는 특유의 물질 때문입니다. 타감물질이라고 하는 화학성분인데요,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소나무가 자라는 곳을 보면 소나무 외에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곳의 바닥을 한번 둘러보세요.(참여유도) 소나무외의 다른 식물의 잎은 찾기 어렵죠? 다른 식물의 생장을 억제해 경계를 나누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묘지 주변에 심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나무와 함께 살아왔기에 알 수 있었던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자~그럼 우리 선조들의 일상에 꼭 필요했던 식물을 만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 조릿대	선조들의 생필품을 만들 던 조릿대
8.선조들의 생필품을 만들 던 조릿대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참여유도) 옛날에는 쌀을 씻을 때 돌이나 잡겨를 걸러내기 위해서 대나무를 이용해 조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조리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조릿대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리를 만들던 대라 해서 조릿대라 하고 산에서 자란다 하여 산죽이라고도 합니다. 조릿대는 줄기의 지름이 1cm도 안되고 키도 1~2m밖에 자라지 않지만 매우 번식력이 높아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땅속으로 줄기를 빽빽이 뻗기 때문에 땅위로 조릿대가 촘촘히 자라서 조릿대가 자라는 땅은 양분이 부족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속줄기 덕분에 비가 많이 내려도 빗물에 흙이 쓸려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합니다. 혹시 우후죽순이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참여유도) 바로 대의 싹이 죽순인데요. 우후죽순이란 말처럼 비가 온 후나 습기가 많을 때 가장 잘 자라 하루에 1미터 가까이 자라기도 해서 우리속담에 “대나무 밭에서 쉬더라도 죽순에는 갓을 벗어 걸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금처럼 플라스틱이나 유리, 철 등이 흔하지 않던 시

8. 선조들의 생필품을 만들던 조릿대	기에 조릿대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죽제품을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릿대는 줄기가 얇아 유연하고, 키가 작아 조리를 포함해 소쿠리 등의 생필품을 만들기 적합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작은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로움을 주었던 식물인지 이제 아셨죠?(참여유도) 그럼 조릿대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너덜지대.	**하찮은 돌도 쓸모가 많아요.**
9.하찮은 돌도 쓸모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왼쪽 산비탈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나무 사이사이로 바위나 큰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친구는 바로 이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곳에 돌무더기가 생겼을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네. 많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산 절벽 밑에 돌무더기가 넓게 펼쳐진 모양을 애추(talus)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너덜, 돌서렁 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너덜지대는 아주 오랜 옛날 높은 산 위에 있던 바위가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 동안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지내면서 온도차이에 따른 수축과 팽창, 풍화작용에 의해 부서진 후 중력으로 떨어져 내려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돌들 중 무거운 돌들은 아래쪽에 쌓이고 가볍고 작은 돌들은 위쪽에 쌓이게 됩니다. 돌들은 계속 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는데 사면의 경사가 35° 내외가 될 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35°를 안식각이라고 하고 이 각도보다 적어지면 더 이상 돌이 굴러 내리지 않아 안정된 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지형이 안정되면 이곳에 식물들의 씨가 날아와 풀과 나무가 자라는데 이곳은 지형이 안정되어 나무와 풀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하잖은 돌도 쓸모가 많아요	또 이러한 곳에는 돌 사이사이 숨을 곳이 많아 다람쥐를 비롯한 작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창골에는 이런 너덜지역이 많아 선조들이 입암산성의 성곽이나 집을 지을 때 돌을 가까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제공해주는 돌이 없었다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곽이나 집을 지을 돌을 어떻게 구했을까요?(참여유도)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많이 고생했겠죠? 지금 걷고 있는 장성새재도 이 돌을 이용하여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위에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도 어느 곳에서라도 사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연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백두대간	**지역과 언어와 상권을 가르는 백두대간**
10.지역과 언어와 상권을 가르는 백두대간	여러분~옆의 계곡을 한 번 봐보세요. 계곡물이 참 시원하게 흐르고 있죠? 이 계곡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참여유도) 이 계곡물은 흘러 장성호에서 모입니다. (바로 옆의 나무줄기 끝을 가르키며) 이 작은 줄기를 지금 흐르고 있는 남창계곡이라고 한다면 이 줄기가 모이는 이 곳은(줄기가 모이는 지점을 가르키며) 장성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큰 줄기가 더 모여서 황룡강(줄기가 모이는 지점), 더 밑으로 흘러 더 큰 줄기인(나무기둥을 가르키며) 영산강에까지 이릅니다. 줄기 밑까지 내려가면 땅에 이르는 것처럼 물은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이 작은 계곡물이 끊키지않고 흘러 흘러 하나에 이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산 또한 이어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참여유도) 우리나라 산은 '백두산에서 비롯한 커다란 한 줄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머라고 할까요? (참여유도) 네~'백두대간'입니다. '백두'는 백두산을 의미하고 '大'자는 '클 대'자입니다. '幹'은 그럼 무슨 간일까요? (참여유도) 네. '줄기 간'을 써서 합치면 백두의 큰 줄기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그 뿌리인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나뭇가지처럼 갈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나무 줄기를 가르키며) 아까 계곡물이라고 비유했던 이 나무를 이번에는 백두대간이라고 한다면 이 큰 줄기는 어디일까요? (참여유도)

10.지역과 언어와 상권을 가르는 백두대간	네. 백두산이겠죠? 이 백두산의 큰 줄기 중 가장 멀리 있는 줄기를 입압산이라고 한다면 옆 줄기는 내장산, 백암산, 무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줄기들은 합치면 호남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큰 줄기에 12개의 정맥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을 땅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줄기, 물줄기를 기초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이상 써온 우리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 체계입니다. 백두대간의 높은 산줄기에 가로막혀 왕래가 어려워진 지역은 밥먹는 방법이 달라지고 농사짓는 방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 사투리가 생겨 독특한 지역문화가 생겼습니다. 또 물줄기에 따라 너른 들과 비옥한 땅에는 마을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이는 계곡 안쪽은 전라남도일까요? 전라북도일까요? (참여유도) 네.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그럼 계곡 건너편은 전라북도일까요? 전라남도일까요? (참여유도) 네.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이 계곡을 경계로 전라남, 북도가 갈린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 탁족	긴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는 탁족
11. 긴 여정의 피로를 풀어주는 탁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 2km를 걸어왔는데 시원한 계곡이 옆에 있으니 잠시 신발을 벗고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으신가요?(참여유도)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곳은 자연보전지구로서 계곡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 해설이 끝나고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프로그램은 우리가 걷는 이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장성새재의 유래와 한양 가는 길 찾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던 마지막 화장실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곳에 탁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계곡 물은 대부분 1급수의 맑은 물이라 수영이나 기타 물을 오염시키는 해위는 금지 돼 있으며 가볍게 손발을 담그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한양으로 떠났던 선비도 아마 계곡에 발을 담그며 긴 여정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집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발을 담가도 좋지만 이런 숲이나 계곡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지면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면서 음이온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두통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두통을 없애주고, 호흡기 질환을 없애준다고 하니 산을 자주 찾아와 탁족을 즐기세요. 이렇듯 국립공원의 맑은 물은 우리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숲

11.긴여정의 피로를 풀어주는 탁족	의 선물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보시적이 있나요?(참여유도) 조선중기의 사대부 화가 이경윤의 고사탁족도(濯足圖)입니다. 계곡에서 마치 발이 시린 듯 발을 꼬고 있는 도사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계곡에서 발을 씻고 노는 것을 탁족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면 임금님도 도화서에 명하여 신하에게 이러한 그림을 하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던 옛날에는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을 찾아 계곡에 발을 담그며 노래도 부르고 풍월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탁족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옛 선조들처럼 시 짓기를 해볼게요. 시제는 '장성새재'입니다. (시 짓기 후) 네.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들을 다시 한번 읊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2.옛 새재리	**옛 새재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12.옛 새재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여기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허물어진 돌담의 흔적도 보이고 조금 자세히 보면 예전에 쓰였던 그릇이나 기와조각들도 보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참여유도) 네. 이곳은 장성새재에서 선조들이 살았던 마을로 조치리(鳥峙里)라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 새재마을은 장성새재의 전라남도 장성군과 전라북도 정읍시 경계지대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주로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군사의 가족들이 살았으며 주막이 성했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거나 장을 보러 갈 때 장성새재를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곳 새재 마을에는 주막이 성했다고 했는데 그럼 주막은 어떤 곳일까요?(참여유도) 네. 다들 잘 알고계시네요. 주막을 음식을 제공하는 여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막에서는 술이나 밥을 먹으면 보통 음식 값 외에는 숙박료를 따로 받지 않았고, 손님에게 침구를 따로 제공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랫목을 차지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좁은 방에 10여명이 혼숙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막이라는 말도 익숙하지만 객주라는 말도 들어보셨죠?(참여유도) 객주는 좀 더 규모가 크고 하는 일도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숙박

12.옛 새재마을에 대한 설명과 선조들의 생활상	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다 남은 물건을 보관해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상인에게 소개도 해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곳 입암산 남창골에는 여러 자연마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고, 1871년(고종 8년)의 호남읍지(湖南邑誌) 중의 입암산성진지(笠岩山城鎭誌)에 은선동, 조치리, 자장동, 정자동, 남창리 등이 기록되어 있어 10여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도 일제 때까지만 해도 20여 가구가 살다가 6.25때 마을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후 10여 가구가 다시 들어섰으나 1970년대 정부시책과 산중생활의 불편으로 마을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후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이 근대화가 되어갈 때 깊은 산속인 이곳에는 근대화의 문명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랍니다. 그럼 근대화의 문명이 미치지 못한 이곳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이곳의 주민들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밭이나 논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주변의 산에서 약초를 캐고, 숯도 굽고 버섯도 키우면서 산과 함께 자급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하며 마을 터 주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마을 터 주변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3.월은치와 불바래기	**월은치와 불바래기는 어떤 곳일까요?**
13.월은치와 불바래기는 어떤 곳일까요? 13.월은치와	이곳 장성새재주변에는 여러 재미있는 지명에 대한 유래가 전해집니다. 옛 문헌을 찾아보면 장성새재 부근에 월은치라는 지명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참여유도) 네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달 월(月) 숨을 은(隱) 고개 치(峙), 이렇게 해서 달이(도)숨는 고개로 불립니다. 그럼 월은치는 어디일까요. 이곳에 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겠죠?(참여유도) 네 문헌과 고지도를 찾아보면 이 곳 새재와 월은치의 위치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곳 새재의 다른 이름이 월은치였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지금 세상에는 각자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에 비교적 쉽게 접근하기 용이해졌으나 예전에는 이곳은 새도 쉬어가고 달도 숨어갈 수밖에 없는 깊은 산속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참여유도)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불바래기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장성새재와 순창새재사이를 불바래기라고 부릅니다. 불바래기라는게 무슨 뜻일까요?(참여유도) 불바래기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매년 불이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과 두번째로는 이곳 위쪽에 절터가 있어 부처를 바라보는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불바래기 내에는 화곡동이라는 마을이 있었

불바래기는 어떤 곳일까요?	습니다. 그 곳도 해방 후까지 4가구가 살았었는데 6.25때 전소되었다 2가구가 다시 들어왔으나 1963년 타지로 이주한 후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바래기에는 한 가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생활하고 계시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생활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선조들처럼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바래기는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큰 곳입니다. 조선시대 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탄압한 병인박해(1866)를 피해 숨어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던 공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천주교교세통계표」에 의하면 불바래기 공소는 1882년 설립당시 36명의 신자가 있었고, 이후 1895년 83명으로 늘어났으나, 이후로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1895년을 끝으로 공소가 폐쇄돼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옛 집터와 도자기 편이 나오는 이곳은 호남지방의 천주교 포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4. 마무리	**봇짐 풀고 마무리**
14.봇짐 풀고 마무리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성새재를 걸어보며 역사와 자연에 대해 배우고 간단한 체험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조금 긴 거리라 힘들었을 텐데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느낌나누기 엽서를 나누어 주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서의 뒷면에는 해설을 들으면서 만족하였거나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신 엽서가 더 낳은 탐방프로그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참여유도/의견정리) 해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자원이나 자연이 새롭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참여유도/의견정리) 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를 다시 방문하실 기회가 된다면 호남의 3대 산성 중 하나인 입암산성을 지나 넓은 호남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갓바위 코스를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봇짐 풀고 마무리	그럼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해설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쉼터인 국립공원을 아끼고 지키는 탐방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해설을 맡은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 첫만남	국 립 공 원 소 개 및 친 해 지 기
주요어 정리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
참 고 자 료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학술적, 문화적, 환경 또는 생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을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름다운 곳을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을 말하며, 1967년 12월29일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개 국립공원은 그 특징에 따라 산악공원, 해상 해안 공원, 사적공원으로 나누어집니다. 1971년 11월17일 내장산과 백암산, 입암산을 포함하여 내장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전남 장성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국립공원자연해설 안내서. p157.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p11.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남창지구 탐방안내서. p59, 60.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 첫만남	국 립 공 원 소 개 및 친 해 지 기
주요어 정리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
참 고 자 료	○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은? -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 합니다 : 탐방로가 아닌 지역에 출입하면 자연이 훼손되어 아프답니다. - 산불조심 : 한순간의 실수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데 100년이나 소요 된데요. - 자연사랑 공원사랑 : 꽃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면 야생 동식물이 살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들도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애완동물을 데려 오지마세요 :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완동물은 집에 두고 오세요. -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맙시다. : 취사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세요.
참고문헌 및 출 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국립공원자연해설 안내서. p157.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서. p11.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남창지구 탐방안내서. p59, 60.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한양 가는 길 찾기
주요어 정리	○ 호패
참 고 자 료	○ 호패 -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해 항상 몸에 차게 한 것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호패의 유래는 고려 공양왕 3년(1391)도평의사사에서 군역의 담당자인 군정에게 이를 패용하게 하도록 건의한데서 찾을 수 있다. (중략) 호패는 신분을 확인하고 거주지별로 통제하며, 나아가 유망 및 피역을 방지하여 조세를 원활히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 그 재료부터가 달랐다. 호패는 신분에 따라 그 재료부터가 달랐다. 태종13년에 사용한 호패는 위는 둥글고 아래는 각진 상원하방형으로 길이는 3촌7푼이고 너비는 1촌3푼. 두께는 2푼이었다. 2품 이상 고위 벼슬아치의 로패는 상아로 만들었으나, 4품 이상은 녹각, 5~6품은 황양목, 7품이하는 자작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서인 이하는 잡목으로 만들어 양반의 호패와 구별되게 하였다. 또 3품 이상은 관직을 기술하였으며, 3품 이하는 관직, 성명, 주소까지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일반 서인들의 경우 성명과 주소는 물론 얼굴색과 수염의유무등 자세한 사항을 모두 적어야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이덕일(1999). 유물로 읽는 우리역사. 세종서적 175~176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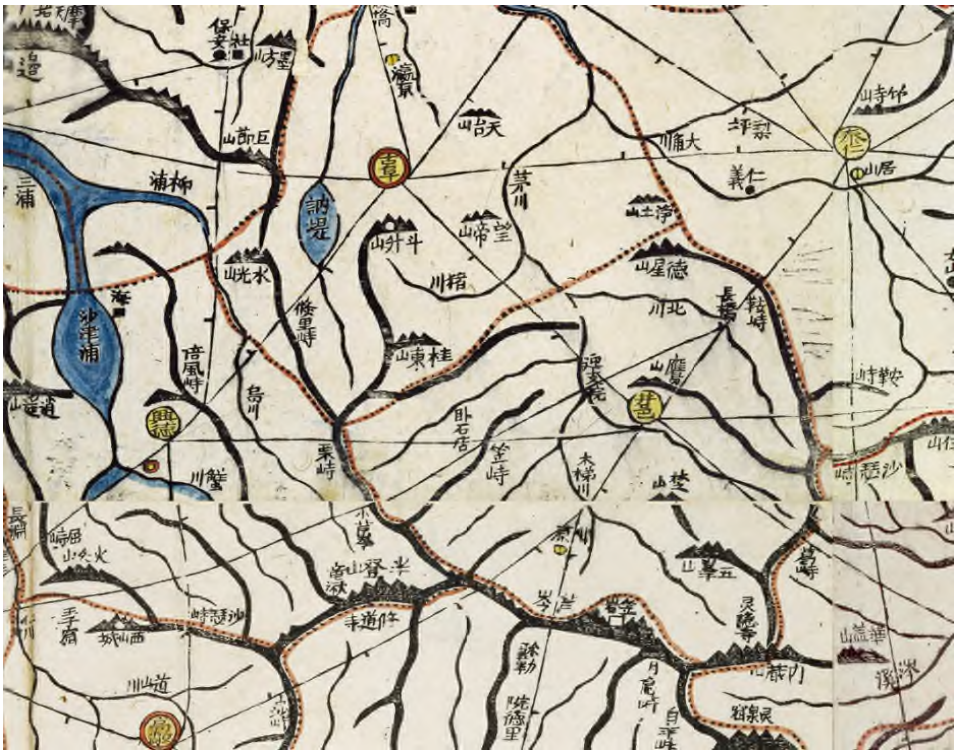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한양 가는 길 찾기
주요어 정리	○ 남창마을의 유래
참 고 자 료	○ 남창마을의 유래 - 남창마을은 본래 장성군 북하면에 속했는데, 1975년 장성댐이 건설되면서 북하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남창마을이라는 명칭은 옛날 이곳(현재의 전남대 수련원 자리)에 남창(남쪽의 곡식창고)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입암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창골이 있는데 이곳의 명칭도 남창마을처럼 북쪽의 창고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략)
참고문헌 및 출 처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9). 재미있는 백암산이야기. 1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한양 가는 길 찾기
주요어 정리	○ 한양 가는 길
참 고 자 료	○ 한양 가는 길 - 장성에서 정읍, 태인, 금구, 여산, 천안, 수원, 과천 길을 따라 한양으로 갔다고 한다.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길 참고)  <그림 1> 대동여지도. 정읍주변
참고문헌 및 출 처	◦ 김정호(1861). 대동여지도.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장 성 새 재 유 래 에 대 한 설 명
주요어 정리	○ 장성새재
참 고 자 료	○ 새재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서 전북 정읍시 입암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 경계 지대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군사의 가족들이 살았으며 주막이 성했다 한다. 일제 때 20여 호가 살다가 6.25때 전소되었으며 이후 10여 호가 들어섰으나 1970년 정부시책으로 마을민이 타지로 이거한 후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재」라는 이름은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사이(間) 재가 변했다는 설, 새(鳥)도 쉬어 넘기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다. -장성새재 길을 옛날부터 호남에서 서울로 가는 이동로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호남 선비들의 과거길이기도 하였다. 한때 군사도로로 이용되기도 한 이 탐방로는 평탄하여 산책 형 탐방로로 활용하기 좋은 곳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 ◦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장 성 새 재 의 유 래 에 대 한 설 명
주요어 정리	○ 갈재
참 고 자 료	○ 갈재 - 고갯길이 호젓하고 험해서 도적이 떼로 모여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므로 나그네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중종 15년에 보방수를 두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글귀에도 나타난다. 중략 남도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넘을 수 밖에 없었던 갈재는 높이가 276m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라 안에서 제법 험한 고개로 알려져 노령이라 불렸으며 여러 전설들이 생겨났다. - 전남북을 갈라놓은 노령산맥을 넘어 여러 개의 재(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써 남도인의 애환이 서려있다. 立岩山과 方丈山사이의 협곡에 있는 이 재는 국도 1호선과 호남선 철도, 호남고속도로가 모두 이곳을 통과하며 조선 중기(成宗代 라는 설도 있음) 유명한 기생 갈애(蘆花)의 전설이 얽혀 「갈재」라 부른다는 설이 있으나 『東國輿地勝覽』에는 「葦嶺(위령)」
참고문헌 및 출 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 ◦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장 성 새 재 의 유 래 에 대 한 설 명
주요어 정리	○ 갈재
참 고 자 료	이라 (기록하고「蘆領」으로도 부른다고 하였고, 『高麗史節要』현종 顯宗) 2년 1월 條에 丁亥일에 글안(거란)의 침입으로 왕이 「노령」을 넘어 나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이때도「노령」이라고 부른 것 같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새지로서 재의 동편 입암산 정상에는 笠岩山城이 있고 서쪽 봉우리 에는 「도둑성」이라 부르는 성축기지가 있으며『東國輿地勝覽』· 『長城邑誌』에 「위령군보(葦嶺軍堡)」를 설치하여 행인들을 도둑들로부터 보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도로가 나기 전 구 갈재는 현재의 국도보다 동쪽인 입암산 서단을 넘었으며 철도와 고속도로는 터널을 뚫고 통과한다.
참고문헌 및 출 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 ◦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 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101p.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2. 장성새재	장 성 새 재 의 유 래 에 대 한 설 명
주요어 정리	○ 갈재
참 고 자 료	- 위령군보(葦嶺軍堡) : 嶺路幽厄盜賊羣聚白晝殺掠行旅不通 今上十五年設堡防守 (영로유애도적군취백화살약행여불통 금상십오년설보방수)『東國輿地勝覽』- 고갯길이 호젓하고 험해서 도적이 떼로 모여 대낮에도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므로 나그네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 15년(成宗, 1484년)에 보방수를 두었다) 今名嶺路幽厄盜賊羣聚白晝殺掠行旅不通　成廟十五年設堡防守今牙(금명 노령영로유애도적군취백화살약행여불통　　성묘십오년설보방수금아) 『長城邑誌』(1927년)
참고문헌 및 출 처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 ◦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하면편). 298p. ◦ 신정일/휴머니스트(2004). 다시쓰는 택리지2(전라경상편). 101p. ◦ 장성문화원(1998). 장성군 마을사(북이면편). 143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3. 남창골의 두 선비	**장 성 새 재 유 래 에 대 한 설 명**
주요어 정리	○ 자하동
참 고 자 료	- 자장동(自藏洞, 紫霞洞, 잣골) 남창골 입구에서 2.5km 지점에 향로봉이 있고 여기에서 서북쪽산길로 2km쯤에 마을이 있다. 황주변씨(黃州邊氏) 경윤(慶胤, 1574~1623)이 모함을 피해와 은거하였으며 옥천육씨(沃川陸氏) 윤관(潤冠)이 일제때 들어와 6.25때까지 살았고 김해김씨(金海金氏)도 일제때 전북 정읍에서 들어와 1970년까지 살았다 한다. 일제때까지 15호가 살다가 해방후 12호(3호는 이거)가 남았는데 6.25때 전소되고 5년 만에 다시 10여호를 이루었으나 점차 줄어들어 4호가 남아있다. 자장동(自藏洞), 자하동(紫霞洞), 자장동(紫藏洞), 잣골, 자장동(子長洞)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력은 알 수 없으며 단지 「紫霞洞」이라는 동명은 변경윤의 호를 따서 붙인것이라는 설이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장성문화원(1989). 장성군마을사(북하면편). 297,298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4.입암산성	**입 암 산 성 에 대 한 역 사 해 설**
주요어 정리	○ 입암산성 역사
참 고 자 료	○ 입암산성 역사 - 입암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지형적 원인으로 삼한시대부터 산성이 축성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중략) 입암산성이 처음 기록에 보이는 것은 고려사절요(高麗史要) 인데 고려 고종 43년(1256) 장군 송군비가 몽고 침략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적상산성 금성산성과 함께 호남의 3대 산성으로 수축과 개축을 거듭하였고 정유재란(1597~1598) 때에는 윤진(1548~1597)이 의병을 모아 왜병에 대항해 끝까지 항쟁하다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중략)
참고문헌 및 출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130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4. 입암산성	**입 암 산 성 에 대 한 역 사 해 설**
주요어 정리	○ 입암산성 현황 ○ 장대
참 고 자 료	○ 입암산성 기본 현황 - 성의 규모 · 둘레: 약 5,200m · 높이: 지형에 따라 1~3.7m 내외 - 성곽시설물 · 성문: 문헌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고 있으나 현재 남문지와 북문지 1개씩이 남아 있다. 특히 남문은 성곽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 장대 및 포루: 장대는 먼 곳을 살펴볼 수 있게 만든 높은 건축물로 주변을 경계하거나 전쟁 시 지휘를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특히 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을 포루라 부르기도 한다. 입암산성의 장대 및 망대지는 동서남북 4개의 장대지, 입암망대지와 망덕봉 망대지의 6개소의 터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130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4. 입암산성	**입 암 산 성 에 대 한 역 사 해 설**
주요어 정리	○ 포곡식
참 고 자 료	○ 포곡식 - 내장산 국립공원 내 입암산 정상으로부터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입암산성은 전형적인 포곡식(산의 능선에 따라 쌓은) 석성이다. 예로부터 정읍과 장성의 경계이자 노령산맥의 주맥인 입암산은 지형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입암산성 지역은 외부에서는 살펴보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천연 요새지역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2007)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산지구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28~130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5.장성새재복원	되 살 아 나 는 장 성 새 재
주요어 정리	○ 답압 ○ 양토
참 고 자 료	○ 답압 - 답압이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중장비 같은 기계에 의해 압력을 받아 흙이 단단해지는 것이다. 답압은 땅속 30cm이상까지도 영향을 미쳐 나무의 뿌리가 더 이상 공기와 물을 자유롭게 빨아들일 수 없게 되어 생장에 커다란 지장을 받는다. (중략) 부드러운 흙은 공기와 물을 흡입하나는 한편 각종 유기물과 흙속의 광물질을 담아 두는 저장고다. (중략)
참고문헌 및 출 처	◦이우충(2007). 삼림욕(잘 먹고 잘 사는 법). 김영사. 126p~127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6. 산림욕	숲 이 우 리 에 게 주 는 이 로 움 과 산 림 욕
주요어 정리	○ 피톤치드
참 고 자 료	○ 피톤치드 - 피톤치드는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가 합쳐진 것으로, 식물이 내뿜는 휘발성 향기 물질이다. 이 말은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해 결핵을 퇴치한 공로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러시아 태생의 미국 세균학자 왁스먼(Waksman)이 처음으로 이름 붙였다. 레닌그라드대학의 토킨(Tokin)박사는 피톤치드의 효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숲 속에 들어갔을 때 풍기는 시원한 숲의 냄새가 피톤치드이며, 이것은 수목이 주위의 구균, 디프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죽이는 방어용 휘발성 물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은 폐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위한 좋은 요양지이기도 하다. 20세기 초에 유행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폐결핵의 그 당시 유일한 치료법은 숲에서 요양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았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심원섭(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지성사. 25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6. 산림욕	숲 이 우 리 에 게 주 는 이 로 움 과 산 림 욕
주요어 정리	○ 피톤치드 효능
참 고 자 료	○ 피톤치드 효능 - 피톤치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 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스트레스감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충북대 수의대에서 쥐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는 이를 잘 입증한다. 전기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용 쥐들에게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화백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를 주입시켜 스트레스 물질인 크르티솔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였더니 모든 쥐들의 코르티솔농도가 20~53퍼센트까지 낮아졌다. 필자가 수행한 피톤치드와 인체 생리 변화의 관계 실험에서도 피톤치드가 인간의 심리와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심원섭(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지성사. p27.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6. 산림욕	숲 이 우 리 에 게 주 는 이 로 움 과 산 림 욕
주요어 정리	○ 국내 침엽수 수종별 피톤치드 함량
참 고 자 료	○ 국내 침엽수 수종별 피톤치드 함량 (단위 : ml/100g)

수종	겨울	여름	수종	겨울	여름
전나무	2.9	3.3	삼나무	3.6	4.0
구상나무	3.9	4.8	편백나무	5.2	5.5
소나무	1.7	1.3	화백나무	3.1	3.3

참고문헌 및 출 처	◦ 심원섭(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지성사. 29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6. 산림욕	숲 이 우 리 에 게 주 는 이 로 움 과 산 림 욕
주요어 정리	○ 효과적인 산림욕 방법
참 고 자 료	○ 효과적인 산림욕 방법 - 산림욕을 피톤치드 발산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피톤치드 발산이 가장 많은 계절은 봄과 여름이므로 이때가 좋다고 할 수 있다. 피톤치드 발산량은 기온과 관계 있는데,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이때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쾌적하게 느끼고 비교적 피톤치드 발산량도 많은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2시경이 산책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심원섭(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지성사. 30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7.소나무	장 성 새 재 옛 길 에 서 만 난 소 나 무
주요어 정리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
참 고 자 료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단연 소나무다. 한국갤럽이 2004년 6월에 실시한 분야별 선호도에서 한국인은 은행나무(4.4%), 단풍나무(3.6%), 벚나무(3.4%), 느티나무(2.8%)를 제치고 소나무(43.8%)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 - 우리나라 산림의 60%이상을 차지하던 소나무 숲이 지금은 겨우 25%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중략)
참고문헌 및 출 처	◦ 전영우(2004). 현암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16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7. 소나무	장 성 새 재 옛 길 에 서 만 난 소 나 무
주요어 정리	○ 민간생활과 소나무 ○ 소나무의 타감작용
참 고 자 료	○ 민간생활과 소나무 - 소나무는 예로부터 중요한 보조식품이었다. 소나무의 속껍질은 근황 식품으로 활용되었는데, 수액이 유동할 때 채취하여 그대로 먹거나 말려서 보관하였다가 가루를 내 송기떡을 해먹었다. 초근목피란 말이 칡뿌리와 목피(소나무의 속껍질)에서 유래한 사연만 봐도 확연히 알수 있다. ○ 소나무의 타감작용 - 소나무 식재가 오랫동안 지속된 다른 이유는 타감물질에 의한 불필요한 식생의 억제로 경계를 구획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가장 빈번했던 송사의 하나가 모역 주변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었음을 감안하면, 소나무 식재의 또 다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전영우(2004). 현암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255p, 224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8. 조릿대	선 조 들 의 생 필 품 을 만 들 던 조 릿 대
주요어 정리	○ 조릿대
참 고 자 료	○ 키 작은 조릿대 - 산길을 가다 보면 잎은 대나무와 비슷한데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는 식물들이 숲길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나무의 한 종류인 조릿대입니다. 조릿대는 줄기의 지름이 1cm도 안되고 키도 1~2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릿대는 매우 빨리 자라며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땅 속으로 줄기를 빽빽이 뻗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다른 식물들은 거의 자랄 수 없습니다. 조릿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것은 조릿대이지만, 울릉도에는 섬조릿대, 제주도에는 제주조릿대도 자랍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이은복(2001). 한국의 자연탐험 대나무. 웅진. 35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8. 조릿대	선 조 들 의 생 필 품 을 만 들 던 조 릿 대
주요어 정리	○ 왕대무리와 조릿대 무리
참 고 자 료	○ 왕대 무리와 조릿대 무리 - 조릿대 무리에는 조릿대, 섬조릿대, 제주조릿대 들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들은 대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늡니다. 조릿대와 비슷한 이대, 갓대, 섬대 들도 이 무리에 속합니다. 조릿대 무리에는 대개 산과 들에서 스스로 자라는 무리가 많습니다. 조릿대 무리가 자라는 곳은 땅 밑에 땅속줄기가 그물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릿대 무리는 빗물에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하고 조리나 담뱃대,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 중략 - 대나무가 굵으면 그 어린 싹인 죽순도 굵습니다. 특히 죽순대의 죽순은 굵고 맛도 좋아 요리를 해서 많이 먹습니다. 또 왕대 무리의 대나무들은 줄기가 단단하고 잘 부러지지 않아 낚싯대나 활 등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줄기가 곧고 길게 쪼개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돗자리나 발, 바구니 같은 여러 가지 죽세품을 만듭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이은복(2001). 한국의 자연탐험 대나무. 웅진. 4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9.너덜지대	**하 찮 은 돌 도 쓸 모 가 많 아 요 .**
주요어 정리	○ 애추
참 고 자 료	○ 애추 - 암석들은 주로 거치른 조립암설로 되었고, 애추사면을 따라서 어느 정도 분급(암설이 낙하하면서 쌓일 때 크기별로 나뉘는 현상)이루어져서 큰 암괴는 가장 밑에 가서 쌓이고 세립암설은 애추사면의 최상부에 쌓이는 경향이 있다. 애추사면의 경사는 일반적으로 35°내외를 유지하는데, 만약 이보다 덜 가파르게 암설이 쌓이게 될 때 암설의 안식각(암설이 안정하게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각도)에 의해 쌓이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내려 계속 원래의 경사를 유지할 수 있다...-중략- 우리나라의 산악지방에도 애추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우리말로 애추를 '너덜', '돌서렁'이라 부르는데 현재 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중략-
참고문헌 및 출 처	◦국립공원관리공단(2004). 내장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74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0.백두대간	지 역 과 언 어 와 상 권 을 가 르 는 백 두 대 간
주요어 정리	○ 백두대간
참 고 자 료	○ 백두대간 - 백두대간은 바로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을 가졌는데,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중심 산줄기이다. 1,625km를 장대하게 내달리면서 국토의 등뼈를 이루로 있다. (중략) 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은 백두대간의 마루금이 지나는 중심 줄기를 이루고, 북한산과 주왕산, 계룡산, 내장산은 정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산은 백두대간의 품에 안겨있고, 국립공원은 이 백두대간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박경화(2010). 그 숲, 그 섬에 어떻게 오시렵니까. 양철북. 183~184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1.탁족	긴 여 정 의 피 로 를 풀 어 주 는 탁 족
주요어 정리	○ 탁족
참 고 자 료	○ 탁족 - 탁족이란 '발을 물에 씻는다'는 뜻인데, 주로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에요. 탁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던 옛 사람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으로 인기를 끌었지요.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에 삼복 더위에 한양의 선비들이 남산과 삼청동 계곡에 몰려가 탁족놀이를 했다고 적혀 있을 정도니까요. <고산탁족도>는 뜻이 높은 선비가 물에 발을 씻는 그림이란 뜻이다.  <그림 3> [고산탁족도] 이경윤
참고문헌 및 출 처	◦ 장세현(2007). 한눈에 반한 미술관. 거인. 147~148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1.탁족	긴 여 정 의 피 로 를 풀 어 주 는 탁 족
주요어 정리	○ 음이온
참 고 자 료	○ 음이온 -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폭포나 숲 근처에 많다. 폭포는 중력 때문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때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하면서 음이온이 생긴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에는 음이온 비율이 높은데 보통 음이온이 공기 1세제곱미터 당 700개 이상이 되어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음이온이 1,000개 이상인 경우 알파파가 활발히 활동해 긴장이 완화된다. 또한 음이온이 많은 공기는 두통을 없애주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신경호르몬인 자유히스타민(free histamin)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심원섭(2007). 숲으로 떠나는 건강 여행. 지성사. 56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2.옛새재리	**옛 새 재 마 을 에 대 한 설 명 과 선 조 들 의 생 활 상**
주요어 정리	○ 마을사
참 고 자 료	○ 마을사 - 새재마을 조치리(鳥峙里)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서 전북 정읍시 입암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경계 지대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입암산성에 주둔했던 군사의 가족들이 살았으며 주막이 성했다 한다. 일제 때 20여호가 살다가 6.25때 전소되었으며 이후 10여호가 들어섰으나 1970년 정부시책으로 마을민이 타지로 이거한 후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새재」라는 이름은 고개가 새의 목처럼 잘룩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졌다는 설과 사이(間) 재가 변했다는 설, 새(鳥)도 쉬어 넘기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2007). 역사·문화자원 관리방안 연구. 178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2.옛새재리	**옛 새 재 마 을 에 대 한 설 명 과 선 조 들 의 생 활 상**
주요어 정리	○ 여행자들의 쉼터 주막, 객주
참 고 자 료	○ 여행자들의 쉼터 주막, 객주 - 객주는 음식을 팔기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팔 물건이나 팔다 남은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고, 때때로 보부상에게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물건을 중개하기도 했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여관업, 대금업, 창고업, 중개업을 주로 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객주가 규모가 크면서 중개업이나 대금업 위주의 영업활동을 한 반면에 여각 자체는 여관업에 치중하였던 것이다. 지방마다 물화의 주요 유통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이들은 그 지방의 물화를 도시에 공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하기도 하여 특수한 상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보부상을 부려 물품을 중개하기도 했고, 장시의 좌고 상인들에게 특별한 물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만큼 보부상과 이들은 상부상조하면서 공존했다.
참고문헌 및 출 처	◦ 이창식(2001). 한국의 보부상. 밀알. 131~132p.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3. 월은치와 불바래기	**월 은 치 와 불 바 래 기 는 어 떤 곳 일 까 요 ?**
주요어 정리	○ 불바래기
참 고 자 료	○ 불바래기 - 불바래기는 행정구역 상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2구에 속한다. 공소는 지금의 남창골(북하면 소재) 남경성 기도원 우측으로 잡목림이 우거진 골짜기를 따라 오르면 2㎞ 지점에 몽계폭포(蒙啓瀑布)가 있고, 작은 소나무 동산이 있는데 부근 갈대숲이 우거진 곳에 있다. 『천주교교세통계표』에 의하면, 불바래기는 1882년 공소 설립당시 36명의 신자가 살고 있었고, 1895년 83명의 교우들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에 줄곧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1895년을 끝으로 공소가 폐쇄되었거나 교우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북쪽으로 순창과 복흥으로 통하며, 남쪽 능선을 넘으면 광주 내인동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이 사목활동을 했던 순회 경유지로서, 불바래기는 내인동 공소에 이르기 전 공소이다.
참고문헌 및 출 처	◦입암산과 종교(박사논문). 김재영/전북정주고등학교

[별지 제4호 서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참 고 자 료

프로그램명	선비도 새도 쉬어가는 장성새재

구 분	보 충 자 료 정 리
13.월은치와 불바래기	**월 은 치 와 불 바 래 기 는 어 떤 곳 일 까 요 ?**
주요어 정리	○ 월은치
참 고 자 료	○ 월은치(月隱峙) - 【장성(長城)】 입암산성(笠巖山城) 석축. 둘레 동쪽이 1,300여 파, 서쪽이 1,400 파(把). 구진성(丘珍城). 석축. 둘레 400척. 영로 : 새치(塞峙) 창평과의 경계. 사라치(沙羅峙) 영광과의 경계. 곡도치(曲道峙) 순창과의 경계. 월은치(月隱峙). 정읍(井邑)과의 경계.  <그림 2> 대동여지도. 정읍주변
참고문헌 및 출 처	◦ 김정호(1861). 대동여지도 .